

## 초등생 위한 강화도 갯벌탐사 교실

초등학생 야외 자연관찰 강좌를 운영해온 경희대 자연사박물관이 지난 5월 25일 인천시 강화군 여차리 바닷가에서 “갯벌탐사 및 탐조”라는 주제로 제44회 환경교실을 열었다.

비교적 잘 보존된 여차리 갯벌에서 자연의 생태를 관찰하고 이곳으로 날아드는 철새들의 세계를 탐구하는 프로그램이다.

## 부산아쿠아리움, 우포늪 전시회

부산 아쿠아리움은 생태계의 보고인 우포늪에 있는 생물을 일부 옮겨 전시하는 ‘우포늪 전시회’를 개최한다.

창녕환경운동연합 부설 우포생태학습원 후원으로 지난 5월 15일부터 오는 7월 6일까지 부산아쿠아리움 지하1층에서 계속되는 이번 전시회는 도시민들에게 다양한 생명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자연의 소중함을 일깨우기 위해 마련됐다.

## 부천, 유엔환경상 도전

경기도 부천시가 ‘글로벌 500’ 유엔환경상 수상에 도전한다. 부천시는 환경개선 사업을 통해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글로벌 500 수상 추진본부’를 출범시켰다고 지난 5월 13일 밝혔다.

시는 주요 사업으로 경유차량 연료인 바이오디젤(식물성경유) 보급, 무공해 천연가스 버스 도입, 자투리땅을 이용한 ‘쌈지공원’ 건립, 시민의 강조성 등을 선정했다.

또 시민들을 위한 환경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주요사업 추진 보고회와 워크숍을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환경생태반과 환경체험투어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는 11월경 이 같은 사업 추진내용을 화보집과 CD롬으로 제작해 수상신청서와 함께 유엔에 제출할 계획이다.

## 낙동강 자연생태학습장 운영

“시원한 강바람을 맞으며 야생 동식물의 생태를 직접 관찰하세요” 대구시 달서구는 지난 5월 12일부터 5월 말일까지 관내 낙동강 생태공원 예정지내 둔치에서 자연생태학습장을 운영했다.

이번 행사는 토, 일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오전, 오후 2차례에 걸쳐 관내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 위생노조 농성 석달만에 풀여

광주 환경위생노조(위원장 양두철)는 지난 5월 13일 분노정화조 업체 불법비리 근절과 환경시설관리공단 직영을 촉구하며 98일째 벌여온 광주시청 앞 밤샘농성을 풀었다.

노조는 “박광태 광주시장이 지난 5월 7일 광주시의회 윤난실 의원을 만나 동북 광산 등 3개 구청의 정화조업 신규공모 때 고용승계를 보장하는 쪽으로 지침을 만들겠다 약속해 농성을 풀다”고 밝혔다.

## 새만금 신구상 제안을 위한 공개 토론회

새만금사업이 더 이상 지역갈등의 원인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기본입장을 다시 확인하면서 이를 활용하고 전라북도가 중심되는 방안마련을 위한 진지한 토론의 장이 지난 5월 14일 전북대 사범대학본관 교수회의실에서 열렸다.

본 토론회에서는 첫째 새만금 사업으로 전북의 발전이 가능한가와 왜 전라북도가 새만금 사업의 주체적인 역할을 하여야하는가를 논의했다. 둘째로는 새만금 신구상의 한 예를 제시하고 그 예를 기준으로 새만금 신구상을 위해 논의되어야 할 중요한 점들을 토론하여 실현가능한 새만금 신구상의 밑거름을 마련했다.

## 위천, 테크노폴리스 오염총량제 따라 결정

대구 테크노폴리스와 위천국가공단 조성문제가 내년 1월 중순쯤 예정된 환경부의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승인여부에 따라 매듭지어질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5월 13일 국회 예결위 소속 백승홍 의원에게 보낸 자료에서 “낙동강 수계의 오염총량 규모가 확정되면 낙동강 상·하류간 공감대 형성이 이뤄진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밝혔다.

## 전기절약운동으로 16% 절전 효과

전국 258개 단체로 구성된 에너지시민연대는 작년 12월부터 추진해 온 “전기에너지 20% 절약운동” 결과 참가가구 55가구가 지난 2월 한달 동안 전기사용량을 16%(총1천928kWh) 줄였다고 최근 밝혔다.

에너지시민연대는 절약운동에 참여한 전국의 55가구를 대상

으로 2월중 절약운동 실태를 파악한 결과 44가구(80%)가 전력 절감에 성공했고 11가구(20%)는 절약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 서울 수질모니터링 프로그램 운영

서울시는 시민이 직접 한강 수질을 측정해 보는 '수질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11월까지 매주 토요일 한강시민공원 선유도 지구와 월드컵공원내 난지연못에서 운영한다고 지난 5월 7일 밝혔다.

프로그램에서는 현장에서 채수한 시료의 용존산소 등 오염도를 측정해 보고 민간단체 환경전문가로부터 하천 환경과 수질관리에 대한 교육도 받을 수 있다.

학생 등 시민 누구나 무료로 참가할 수 있으며, 현장을 방문하거나 사전에 전화(선유도 지구 ☎749-9643 6, 난지연못 ☎862-0062)로 신청하면 된다.

## 수원 하수처리장 高度처리 사업

경기도 수원시는 하천의 부영양화를 막기 위해 2006년까지 577억2천100만원을 들여 하수처리장에 고도처리 시설을 설치하기로 했다.

지난 5월 1일 시(市)에 따르면 현재 가동 중인 하수처리장(하루처리능력 20만t)이 질소와 인을 처리하지 않아 황구치천을 통해 서해안까지 부영양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는 이에 따라 올해 용역과 업체를 선정해 2004년부터 2006년말까지 고도처리시설을 설치하기로 했다.

## 강원 환경감찰대 출범

“올 여름 행락지에서는 환경오염 행위를 조심하세요.”

강원도는 지난 5월 6일 오후 1시 도청 회의실에서 환경사법경찰 36명과 환경감찰원 72명 등 총 108명으로 구성되는 '환경감찰대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환경오염 행위 감시활동에 들어갔다.

강원도는 이들 환경감찰대원들의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월 적발건수 59건(1인 20만원), 월 적발건수 10건 이상(1인 30만원)을 올린 환경감찰대원들에게 총 1130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하기도 했다.

## 경산시, 환경관리종합센터공사 상반기 재개

경북 경산시는 올 상반기에 환경관리종합센터 사업을 재개한다고 지난 5월 3일 밝혔다.

경산시에 따르면 지난 99년 행정소송 제기로 중단된 남산면 남곡리의 환경관리종합센터 사업을 상반기에 재개해 2005년 말까지 끝내기로 했다.

환경관리종합센터는 사업비 275억원, 매립지 6만3천㎡의 폐기물처리시설로 지난 2월 대법원에서 원고(주민) 청구가 기각됨에 따라 4년간의 법적 공방이 마무리됐다.

## 청와대 환경학습용 녹색펜 발송

“노무현 정부의 정책 담당자들이 환경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환경정의시민연대 소속인 '노무현 정부의 녹색개혁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일중)'는 지난 5월 1일 일종의 온라인 잡지인 '노 대통령의 환경인식 제고를 위한 녹색펜' 제1호를 제작, 청와대에 발송했다. 녹색펜 제1호에는 인간이 깨끗한 대기·물과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는 권리를 뜻하는 '환경권'의 개념, 환경의 중요성을 다루는 사실 등이 담겨 있다.

또 노 대통령의 취임사에는 환경이라는 용어가 몇 번이나 등장할까를 묻는 '대통령이 풀어야 할 퀴즈' 등도 실려 있다.

## 프탈레이트 주부감시단 출범

서울환경운동연합 여성위원회 모니터단인 주부지킴이는 지난 5월 6일 오전 서울 명동 유트존 앞에서 화장품에서 검출된 환경호르몬 의심물질 '프탈레이트'에 대한 주부감시단 출범식을 갖는다.

이들은 화장품뿐만 아니라 개인용품에도 프탈레이트가 쓰이지 않도록 하는 것은 물론 소비자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제 도입을 촉구해 나갈 계획이다.

## 서울시, 대기오염 측정소·장비 확충

서울시는 대기오염을 철저히 감시하기 위해 최근 측정소 5곳을 신축하고 측정장비를 보강했다고 지난 5월 6일 밝혔다.

시는 지난 2월말까지 노후화된 성북구측정소 등 대기자동차측정소 5곳을 신축한데 이어 14억여원의 예산으로 도로변 대기

측정장비 3대, 수은측정장비 4대,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측정기 2대 등을 확충했다.

## 인제 생명·환경예술제 이달 9일 개최

강원도 인제 내린천담 반대 운동 6주년 기념 '제 5회 생명·환경예술제'가 내린천예술인회 주최로 지난 5월 9일부터 14일까지 함강정 소공원과 백담사 일대에서 열렸다.

예술제는 전야제, 환경백일장, 시낭송회, 환경시화전, 기록사진전, 생태사진전 향토작가 초대전 등으로 다채롭게 구성돼 있다.

내린천 예술인회는 창작활동을 통해 환경보호에 앞장서는데 뜻을 같이하는 예술인들의 모임으로 문학, 미술, 사진, 연극, 만화, 공예 등 각 장르를 초월해 인제지역과 환경을 사랑하는 전국 단위의 예술인 단체다.

## 환경관리공단 이사장 이만의씨

정부는 지난 5월 6일 환경관리공단 이사장에 이만의(李萬儀 57) 전 환경부 차관을 임명했다.

이 신임 이사장은 내무부 지방세제국장, 행정자치부 자치지원국장 및 인사국장, 대통령비서실 비서관을 거쳐 지난 2002년 2월부터 1년여간 환경부 차관을 지냈다. 임기는 3년.

## 환경부, 인사

과장급(4. 24)

- ▲ 대기보전국 생활공해과장 환경서기관 신홍식 장관실 비서관에 포함
- ▲ 자연보전국 자연공원과장 공업서기관 최병찬 감사관실 감사담당관에 포함
- ▲ 장관실 비서관 서기관 김진석 자연보전국 자연공원과장에 포함
- ▲ 감사관실 감사담당관 서기관 장재구 대기보전국 생활공해과장에 포함

4.5급

- ▲ 환경정책국 국토환경보전과 시설서기관 김선호 환경부 근무를 명함. 신행정수도건설추진지원단 파견근무를 명함(2003. 4. 24 ~ 2005. 4. 23)

- ▲ 환경정책국 환경평가과장 서기관 임채환, 폐기물자원국 폐기물정책과 서기관 유제철 환경부 근무를 명함, 건설교통부 파견근무를 명함(2003. 4. 30 ~ 2004. 4. 29)
- ▲ 수질보전국 산업폐수과장 부이사관 강형신 환경정책국 환경평가과장에 포함
- ▲ 건설교통부 시설서기관 김명국 수질보전국 산업폐수과장에 포함(2003. 4. 30 ~ 2004. 4. 29)
- ▲ 건설교통부 서기관 김채규 환경정책국 환경평가과 근무를 명함(2003. 4. 30 ~ 04. 4. 29)
- ▲ 낙동강유역환경청 서기관 배한중 환경정책국 민간환경협력과 근무를 명함
- ▲ 상하수도국 수도정책과 행정사무관 안승호 환경정책국 환경평가과 근무를 명함
- ▲ 금강유역환경청 보건사무관 반무록 대기보전국 대기관리과 근무를 명함
- ▲ 환경정책국 환경평가과 토목사무관 이상길 상하수도국 수도정책과 근무를 명함
- ▲ 한강유역환경청 서기관 김수년 상하수도국 수도관리과 근무를 명함
- ▲ 폐기물자원국 생활폐기물과 행정사무관 황계영 폐기물자원국 폐기물정책과 근무를 명함
- ▲ 영산강유역환경청 행정사무관 홍수원 폐기물자원국 자원재활용과 근무를 명함
- ▲ 영산강유역환경청 환경서기관 이동욱 폐기물자원국 화학물질과 근무를 명함
- ▲ 상하수도국 수도관리과 보건서기관 이기춘 한강유역환경청 유역관리국 지역협력과장에 포함
- ▲ 대기보전국 대기관리과 공업서기관 박운서 낙동강유역환경청 울산환경출장소장에 포함
- ▲ 국립환경연구원 행정사무관 복진승 금강유역환경청 근무를 명함
- ▲ 자연보전국 토양보전과 서기관 설석진 영산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대장에 포함
- ▲ 폐기물자원국 자원재활용과 보건사무관 이재술 영산강유역환경청 근무를 명함
- ▲ 환경정책국 환경기술과 행정사무관 이채은, 국립환경연구원 행정사무관 양희선 환경부 근무를 명함. UNEP특별집행이사회준비기획단 파견근무를 명함(2003. 4. 28 ~ 2004. 5. 31)
- ▲ 상하수도국 수도관리과 환경사무관 강성구 환경부 근무를 명함. 국무조정실 수질개선기획단 파견근무를 명함(2003. 4.

28 ~ 2004. 4. 27).

▲ 국립환경연구원 환경연구관 양형재 국무조정실 수질개선 기획단 파견근무를 명함(2003. 4. 28 ~ 2004. 4. 27).

▲ 환경부 토목사무관 송종운 국무조정실 수질개선기획단 파견근무를 연장함(2003. 4. 29 ~ 2004. 4. 28).

▲ 환경부(수질개선기획단 파견) 환경사무관 김영우 환경부 근무를 명함.

▲ 환경부 행정사무관 김효정 장관실 근무를 명함

▲ 환경부 행정사무관 권영상 환경정책국 환경경제과 근무를 명함

▲ 환경부 행정사무관 최진영 환경정책국 환경기술과 근무를 명함

▲ 환경부 행정사무관 옥선경 자연보전국 토양보전과 근무를 명함

▲ 환경부 행정사무관 서영태 수질보전국 수질정책과 근무를 명함

▲ 환경부 행정사무관 정명규 상하수도국 수도관리과 근무를 명함

▲ 환경부 행정사무관 김지영 폐기물자원국 생활폐기물과 근무를 명함

▲ 환경부 환경사무관 이상진 국제협력관실 지구환경(담) 근무를 명함

▲ 환경부 환경사무관 양한나 대기보전국 교통공해과 근무를 명함

▲ 환경부 화공사무관 김희승 폐기물자원국 화학물질과 근무를 명함

### 서울시 물순환체계 구축 심포지엄

서울시는 지난 5월 29일 오전 1시 서초동 시정개발연구원에서 '물순환 체계구축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물순환 기본계획을 수립중인 서울시가 각계 전문가 의견을 수렴을 위해 마련하는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남원 박사, 임업연구원 정용호 박사 등 전문가 10여명이

참석, 효과적인 수자원 관리에 관해 발표와 토론을 벌였다.

### 군 환경보전 국방연구원 학술대회

한국국방연구원(KIDA)은 국방부 시설국과 공동으로 지난 4월 29일 오전 10시30분 연구원내 관영당에서 "참여정부의 환경정책과 군 환경보전 활동방향"을 주제로 제5회 군 환경보전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국방부·환경부 당국자, 주한미군·환경관련연구소·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국방부의 환경보전 정책, 주한미군 환경 프로그램, 군 비행장, 사격장 소음 대책 등에 대한 주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 대구환경청, 자연훼손모니터 요원 28명 위촉

대구지방환경청은 대구·경북지역 각 시·군·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명예환경감시원 28명을 자연훼손모니터 요원으로 위촉했다고 지난 4월 24일 밝혔다.

이 요원들은 환경영향평가나 사전환경성 검토를 거치지 않고 공사를 시작하는 행위를 중점 감시하며 이들에 의해 신고된 사업장은 위법사실이 확인되면 공사중지 명령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를 당한다.

### 부산 서구, 재활용 최우수 단체 선정

서구가 부산에서 페스티로폼 분리수거와 재활용을 가장 잘하는 지자체로 뽑혔다. (사)한국발포스티렌재활용협회(회장 안복현)는 지난 4월 21일 "2003년 스티로폼 재활용 우수지자체 시상식에서 경북 구미시를 전국의 시군구 가운데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하는 한편, 부산 서구를 우수 지자체에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우수 지자체 선정은 환경부가 전국 시도로부터 추천받은 시군구 가운데 한국발포스티렌재활용협회가 심사를 거쳐 선정했다. 